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김*만
파견국가	영국	파견도시	Huddersfield
파견대학	University of Huddersfield	파견기간	1년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허더스필드 대학교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기차로 30분, 리즈에서 약 20분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는 우리학교에 약 1/4정도 되는 것 같고, 학교 내에 매점과 식당, 체육관 도서관 및 컴퓨터 실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학교 분위기 입니다.</p>
2014-2학기 수업	<p><i>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i></p> <p>영국의 대학 같은 경우 한국과 다르게 한번 수강한 과목들(module)을 1년에 걸쳐 들을 수 있고 교양수업이 따로 없는 전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수업도 (학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 6과목 정도까지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행정학과 학생이지만 교환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학과 수업을 듣는 것에 큰 지장이 없어서 범죄학 4과목 (Explaining and Responding to crime / The policing and police / Violent crime / Myths and Realities of crime), 경영학과 수업 1과목 수강했습니다.</p> <p>수업은 한국과 다르게 Lecture라고 불리는 전공수업과 Seminar라고 불리는 전공보충 및 토론 시간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수업방식은 lecture같은 경우 한국의 전공수업과 비슷하게 교수님 위주로 수업을 하고 Seminar같은 경우 교수님의 보충 설명도 있지만 학생들의 참여 및 토론을 위주로 진행됩니다.</p> <p>수업 준비 같은 경우 책은 우선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PPT로 진행이</p>

	<p>되며 자료는 학교 시스템에서 자신이 신청한 과목에 업데이트 되어있어 미리 참고하고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p> <p>과제 같은 경우 한 과목당 적게는 1개 많게는 3~4개정도 있고, 시험이 없다면 과제가 많은 편이고 시험이 있으면 과제는 적은 편이지만, 이건 교수재량이라서 수강 신청하기 전에 Induction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학년 수업 같은 경우 시험이 거의 없고 과제도 별로 없지만 학년이 높아질 수록 시험과 과제가 많아집니다.)</p> <p>시험 같은 경우 주어진 주제에 대해 논술하는 식으로, 저 같은 경우 2시간에 걸쳐서 시험을 봤고, 과제 같은 경우 essay형식으로 글자수는 적게는 2000자에서 많게는 4000자까지 썼습니다.</p> <p>수강 신청 같은 경우 본인이 전공학과 사무실에 가서서 승인 받고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영국은 9월 중순에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약 2주동안 정정기간으로 두는 것 같기 때문에 수강신청에 여유가 있습니다.</p>
2015-1학기 수업	신청한 과목들로 1년을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우선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 학교에 왔을 때 교환학생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수강 신청할 때 곤란한 점은 있었지만 교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한 편이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수강신청 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은 신청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학교 주최로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열리곤 합니다. (특히, 각 나라들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상당히 많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영국 같은 경우 우중충하고 비가 많이 오긴 합니다. 특히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추위를 잘 타시는 분은 두꺼운 옷 여러 벌 가져오시면 도움이 됩니다.</p> <p>가을 같은 경우 한국의 가을 정도의 날씨라고 보시면 되고 겨울은 한국보다 온도가 높긴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온도는 한국보다 춥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특히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시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p> <p>여름은 확실히 날씨가 시원합니다. 오히려 초봄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영국에서 굳이 반팔을 입으실 기회는 여름 유럽여행을 가는 날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도시자체가 조용한 편이라서 사건, 사고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밤 늦게 돌아다니지 마세요</p>
숙소	<p><i>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기숙사 같은 경우는 학교측에서 제공하는 Ashenhurst라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허더스필드 대학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서 기숙사는 학교측에서 제공하는 2개의 기숙사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사설 기숙사(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도 사설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설 부분에서 학교측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보다 월등히 좋고 위치도 훨씬 좋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2개의 기숙사는 되도록 선택 안하시는게 좋습니다.</p> <p>제가 머문 기숙사는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보로 학교까지 약 15분, 타운센터까지는 약 20~25분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기숙사측에서 약 1년 버스 정기권을 팔기 때문에 (약 2만5천원정도-15파운드) 사셔서 버스 타시면 됩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오후6시가 넘어가면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무료입니다.)</p>

<div data-bbox="284 663 352 698" data-label="Section-Header"> <p>식사</p> </div>	<div data-bbox="418 320 1225 448" data-label="Text">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o ) 직접 요리 ( o ) 기타 (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div> <div data-bbox="418 504 1340 584" data-label="Text"> <p>저 같은 경우 약 4개월간 밖에서 사서 먹거나 시리얼을 주로 먹었고 나머지 기간에는 직접 해먹었습니다.</p> </div> <div data-bbox="418 640 1340 721" data-label="Text"> <p>이곳에 맥도날드, KFC 그리고 서브웨이 같은 패스트푸드 음식점도 있고, 각종 pub도 있어서 한끼식사에 3~8파운드 정도 됩니다.</p> </div> <div data-bbox="418 777 1340 904" data-label="Text"> <p>시리얼 같은 경우 한국보다 싸고 우유도 2L에 1700원 - 1파운드 정도 하고 빵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주로 시리얼과 빵을 주로 많이 먹었습니다.</p> </div> <div data-bbox="418 916 1340 1043" data-label="Text"> <p>이곳에 아시아 음식재료를 파는 곳이 있어 그곳에서 쌀을 구입했고, 대형 마트에서 신선한 야채 및 여러 가지 재료들을 구할 수 있고 한국음식을 만들어 먹기에 불편함은 없습니다.</p> </div>
<div data-bbox="284 1382 352 1417" data-label="Section-Header"> <p>교통</p> </div>	<div data-bbox="418 1196 922 1232" data-label="Text">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div> <div data-bbox="418 1288 1340 1599" data-label="Text"> <p>버스정기권 사서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이 버스를 타시면 타운까지 한번에 가기 때문에 장보고 학교 가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배차간격은 월~토 오후 6시 이전까지 30분간격, 오후 6시 이후로 1시간 간격입니다. 주일에는 1시간 가격입니다. 관광 같은 경우 맨체스터나 리즈같은 대도시는 기차를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런던 같은 경우 megabus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왕복 약 2만 5천원정도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편도 3시간 정도 입니다.</p> </div>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70만원 (왕복)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수업료를 제외하고 따로 없습니다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입학할 때 학교 내에 있는 의료실에서 등록하고, 진료받고 싶으면 예약해서 진료받으면 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는 없습니다. (영국 의료실 이용은 무료입니다)
숙소		-
식비		
교통비		
책값		-
기타1		보통 생활비 한달에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0만원씩 저금해도 충분히 생활 가능합니다. 이곳 물가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고 오히려 싼 부분도 있습니다.
기타2		
합계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언어(사투리) : 지금은 영국대학들이 정책을 바꿔서 토플은 안되고 아이엘츠 성적만 인정하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 토플을 공부해서 미국식 영어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영어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게다가 영국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투리가 있고 우리에게 그나마 익숙한 영국영어는 주로 런던, 옥스포드 이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요크셔지방에서 쓰는 영국영어는 전혀 다른 발음을 갖고 있어서 알아듣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사투리에 익숙해지는데 거의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허더스필드대학과 예식스대학 같은 경우 주로 쓰는 억양이 posh와 다르기 때문에 가기 전에 사투리 억양에 익숙해지시면 영어를 습득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허더스필드에서 쓰는 억양은 영국 드라마 my mad fat diary를 보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 영국에는 O2, Vodafone, three, giffgaff 등의 통신회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월 정액으로 사셔도 되고, 유심칩을 사서 달마다 내는 방식으로 사셔도 되는데 주로 유학생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영국에서 후자의 방법을 pay as go라고 부릅니다).

와이파이같은 경우 기숙사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근처 커피숍이나 펍같은 경우 일일이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과 삼성기기로는 학교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저같은 경우는 three 모바일 15파운드 (약 2만 5천원)에 데이터 무제한을 사용했습니다.

식수 : 영국 사람들은 주로 tap water라는 수도물을 식수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수도물에는 석회질이 포함이 되어있어 처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을 물갈이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주로 사서 마시거나 학교 도서관에서 물을 담아 마셨습니다. 영국에서 일반 물(still water) 가격은 45펜스~85펜스 정도 (약 800원에서 1000원정도) 합니다. 저는 또 저렴한 물에 배탈이 나서 주로 60펜스나 85펜스 물을 사서 마셨습니다.

친구 만들기 : 영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참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먼저 말을 걸지 않는 이상 그들이 먼저 말을 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나는 범죄학과 수업을 들었고, 교환학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동양인이라고는 나 혼자 밖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말을 거는 경우는 딱 2번 있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통해서 친구를 만드는 것은 정말 비추한다. 9월 학기가 시작하면 opening day 비슷한 걸 열어서 동아리 회원 모집도 하고 학교 소개도 하고 그러는데,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를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 같은 플랫폼에 사는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을 추천한다. 나같은 경우는 한국 라면을 사가서 같이 먹기도 했고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기도 하고 파티에 같이 가기도 했다. 특히 학교에서 크고 작은 이벤트를 열곤 하는데 학교와 페이스북 친구하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에는 참 좋다고 생각한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약 1년간 외국에서 공부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살면서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본다. 그런 기회를 학교측에서 제공해주셔서 우선 참 감사를 드린다.







한국에 돌아갈 날이 약 한달 정도 남았다. 작년 9월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비교해보면 우선 영어가 참 많이 늘었다. 딱히 영어를 시간 내서 공부한 것은 아니었고, 영어에 노출된 시간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하고 싶은 표현을 영어로 하는 것에 큰 불편함은 없다.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결심한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유럽여행이었다. 특히 크리스마스 방학 때 과제하느라 방학 때 학교에만 남아있어서 더욱 가고 싶었던 여행이었다. 3월달 이스터 방학 때 다녀왔던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에서의 추억과 이번 학기가 끝나고 갔다 온 체코, 독일, 벨기에의 인상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다.

건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상이라기 보다는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특징들이 너무 매력적이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 가고 싶은 나라들은 너무 많아서 시간 날 때 마다 갔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래도 유럽 여행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갖는 로망이라든지 두려움 같은 것들은 없어서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싶다.

교환학생의 목표로 영어와 여행이었다. 교환학생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 두가지 목표를 그래도 이룬 것 같아서 기분은 좋다. 그리고 영국의 매력에 생각보다 깊게 빠져서 다음 번에 런던이나 맨체스터로 공부 혹은 워킹홀리데이로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학교 전경1</p>	<p>학교전경2</p>
	
<p>도서관</p>	<p>International Festival</p>
	
<p>Light Festival of Huddersfield</p>	<p>Food festival</p>